

#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편



## CONTENTS

- 
- 01 **SAFETY GRAPHIC**  
안전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 02 **SAFETY NOW**  
'경고'를 '안전'으로 바꾸는 실천

---

  - 03 **INTERVIEW**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박사

---

  - 04 **SAFETY CHECK**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

  - 05 **SAFETY TIP**  
'어린이 교통안전도시' 세종시를 향해 한 걸음 더

---

  - 06 **SAFETY MANUAL**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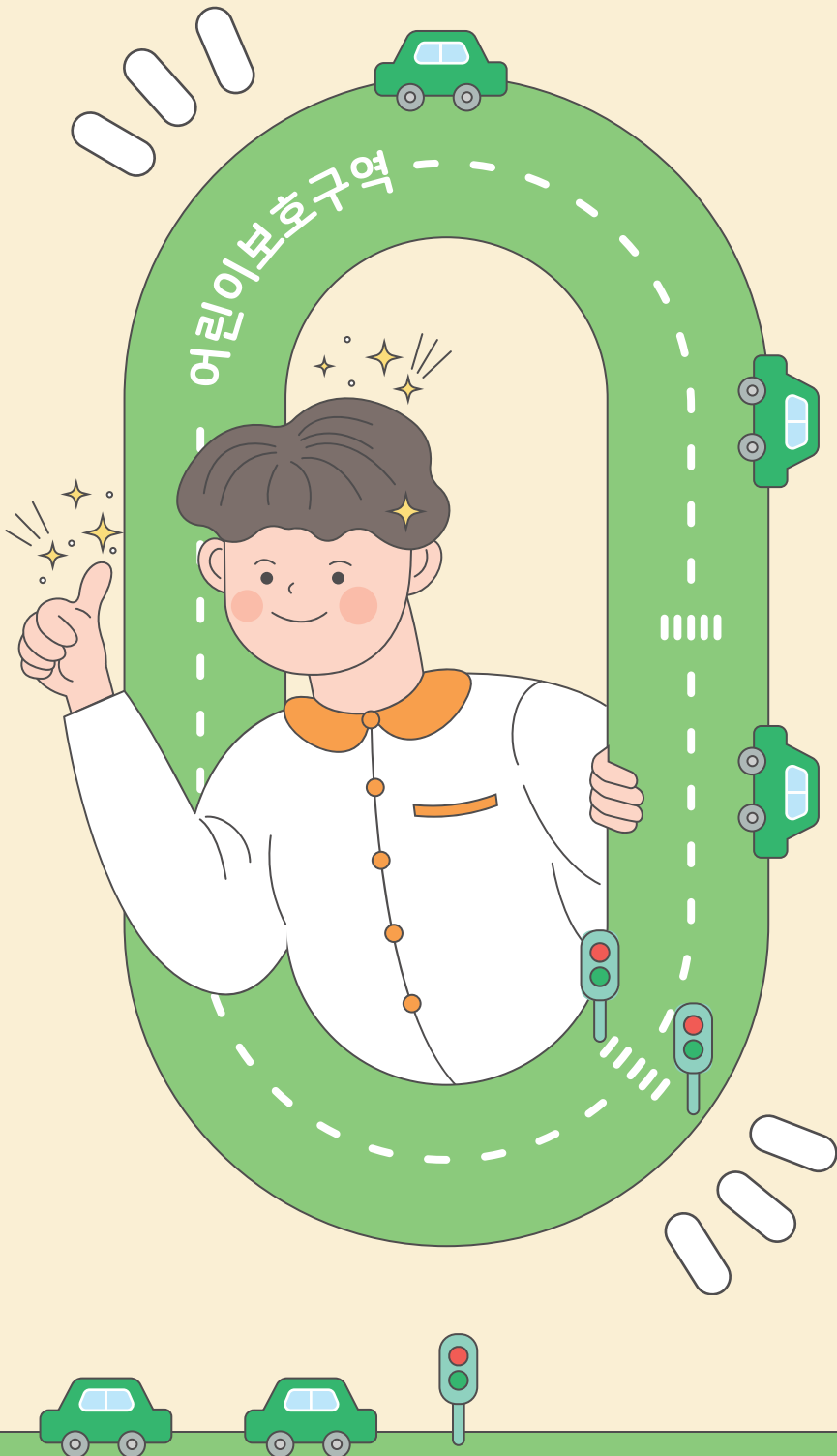
  - 07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안전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건수가 '0'이 되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답게 타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및 인구 대비 사고 건수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단 1건의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사고 발생건수가 낮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0'건으로 유지되는 날이 계속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총 70개소

- 세종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014년 37개소에서
- 어린이보호구역 총 70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초등학교

49개



유치원

12개

## 세종시 어린이 인구 현황

- 세종시 어린이 인구(연앙인구\*기준)는 2014년 21,504명
-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도 2014년 15.2%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이용해 주로 1년의 인구 중 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인구수를 연앙인구

2014	2015	2016
21,504	31,218	40,796

##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안전

지난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발의부터 시행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실효성을 가짐으로써 보호받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한 법안이다. 제도 생활화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올바른 운전수칙과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한 보행-

### 민식이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안전운전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 어린이보호구



운전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기
-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차량 사이로 뛰어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보호

- 안전한 보행 방법 지키기
- 자전거·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 착용
- 어린이 옷, 가방 그리 밝은 색이나 투명 우산 사용하기
- 어린이들에게 모범 보이기

2019년 3월 기준 총 70개소로 **2배 이상 증가**  
 27개소, 신호등은 42개소 설치(20. 3. 25 기준)



**특수학교**

1개



**어린이집**

8개

2018년 59,474명에서 2019년 59,4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  
 2018년 **18.2%로 증가**

그 해의 중간 일인  
 라 한다.

2017	2018	2019
47,544	54,275	59,474

##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다.  
 술한 찬반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 못하는 보호구역을 없애기 위한 법률이라는  
 는 정비되었으니 남은 것은 일상에서 안전습관을  
 이 '보호구역'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운전자의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전 의무 소홀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또는 5백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역 안전수칙



**운전자**

- 무단횡단 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기
-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 차가 멈춘는지 확인 후 손 들고 건너기
- 길을 건널 때는 뛰지 않고 걸어가기



**어린이**

##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는 방향성이 없음
-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018년 3명을 제외하고 평균 8명을 유지(높은 사망자 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사고 건수	12,110	12,191	11,264	10,960	10,009
	사망자	52	65	71	54	34
	부상자	14,894	15,034	14,215	13,433	12,543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정 현황	15,799	16,085	16,355	16,555	16,765
	사고 건수	523	541	480	479	435
	사망자	4	8	8	8	3
	부상자	553	558	510	487	473

## 세종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세종시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감을 반복
- 어린이 전체 사고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비율은 2015년 16.7%에서 2019년 6.3%로 10.4% 감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사고 건수	10	18	31	61	49
	사망자	0	0	0	0	0
	부상자	31	26	49	74	61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정 현황	37	49	52	60	66
	사고 건수	0	3	4	5	1
	사망자	0	0	0	0	0
	부상자	-	3	4	5	1

## 세종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현황 분석(2016~2018년)

어린이 보행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 (신도심)
총 55건 (중상 16명, 경상 39명)	총 10건 (경상 사고)	총 6건
어린이보호구역 총 39개소 어린이 보행사고 6건	<	신도심 1개소 어린이 보행사고 7건

지난 3년(16~18년) 간 신도심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총 39개소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사고는 6건, 보호구역이 아닌 신도심 1개소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7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원인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법규 위반 별 사고 유형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최다 발생

사고 발생 원인	전국 현황(2015년~2019년)	세종시 현황(2015년~2019년)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15건	-
과속	21건	-
중앙선 침범	22건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82건	2건
신호위반	414건	2건
<b>보행자 보호의무 위반</b>	<b>1012건</b>	<b>10건</b>
기타(운전자 법규위반)	406건	3건

안전지대가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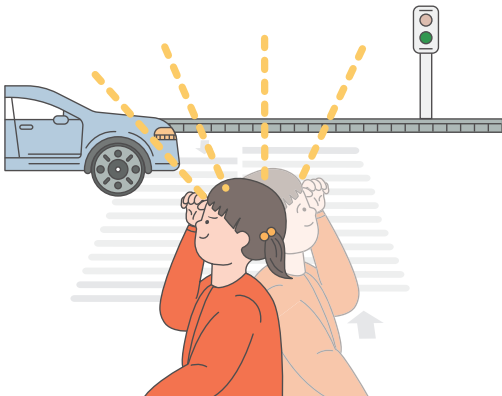
세종시에는 모두 7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0명을 유지하고 있고,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건수의 비중은 2015년 16.6%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2%, 2%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15년 3명, 2017년 5명, 2018년 1명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운전 의무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 신고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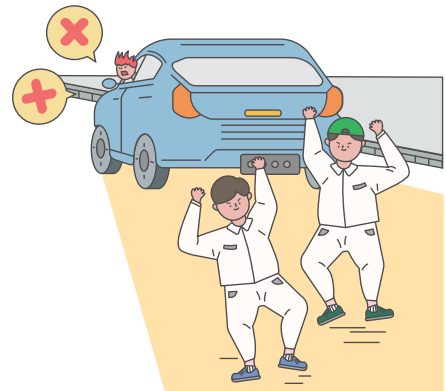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전지대를 지날 때는 꼭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건너기 전에 두 번 확인하고 건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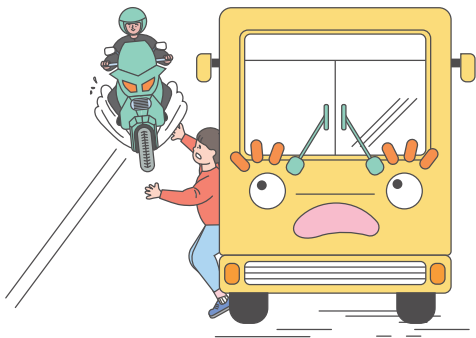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확인하세요. 좌우를 살펴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너요. 이때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똑바로 걸으며 건너야 해요.

## 안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면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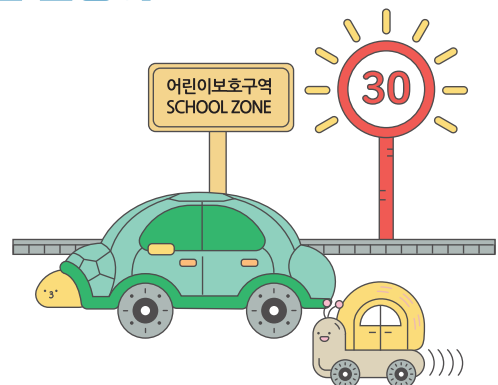
멈춰있는 자동차 주위에서 놀면 안돼요. 특히 자동차 뒤쪽이나 바로 옆에서 놀면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 틈새를 파고드는 위험까지 확인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버스와 내리는 사람 사이로 갑자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통학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하고 내리세요.

## 뛰는 거북이 위에 나는 달팽이



천천히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서나 신호와 규정 속도 30km/h를 지켜주세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꼭 지켜주세요.

## 움직이는 '일시정지'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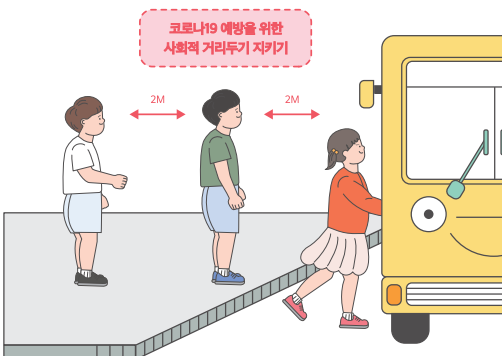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시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어린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 여기요! 여기 자동차가 서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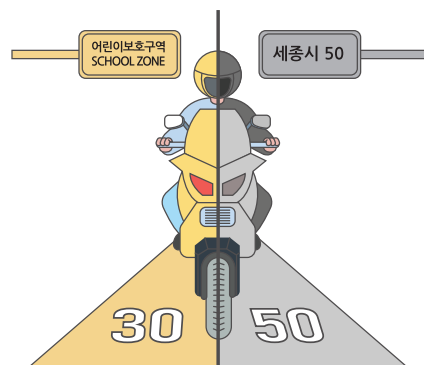
불법 주차자 신고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차량 차량을 보면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안전제보 앱을 통해 공익 신고에 동참해주세요.

## 밥상 위에 젓가락처럼 나란히 나란히



버스를 기다릴 때는 차도와 떨어져 물러서 있고, 차에 탈 때는 한 줄로 차례대로 탑니다.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고,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기만히 앉아 있어요.

##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



안전한 배달을 위해 '5030'을 기억해 주세요. 도심에서의 제한속도 50km/h와 학교 및 주택가에서의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면 안전까지 배달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배달해 주세요!

#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수칙

세종시의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분과회의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난폭운전 오토바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단속 등의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것,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설문조사 결과 단지 내 도로가 보호구역보다 6배 더 위험하다고 응답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배달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조심해야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도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 2019년 4월 997명을 대상으로 현대해상 조사 / 단지 내 86.1%, 어린이 보호구역 13.9%

이륜차 배달 안전사고 예방 10계명

기사님,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에요!

- 1 안전모,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2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킵니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금지)
- 3 눈, 비 등 기상여건을 확인하고 야간, 출퇴근시간 등 취약 시간 배달시에는 전조등을 켜고 방어운전합니다.
- 4 이륜차 바퀴, 브레이크, 전조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합니다.
- 5 안전한 배달을 위해 급하게,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습니다.
- 6 신호가 바뀌어도 급하게 출발하지 말고 노란불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교차로 통행 전 좌우 확인 후 방향지시등 켜기)
- 7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배달통은 이륜차 보관함에 신고 운행)
- 8 배달 예정 지역의 지형, 도로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합니다.  
(배달 전 안전 운행 경로 미리 숙지)
- 9 이륜차 운행을 위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합니다.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
- 10 이륜차 재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안전이 배달돼요!



'빨리 배달해 주세요'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해주세요.



소중한 물건과 함께 안전까지 배달하는 기사님께  
늦었다는 짜증 대신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되어 주세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공익 신고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SAFETY NOW | '경고'를 '안전'으로 바꾸는 실천

# 함께하면 법보다 실천으로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

**세종시의 지역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19.3%로 전국 평균 11.6%를 상회한다. 지역 인구가 증가하며 어린이 인구도 늘어난 것.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증가하는 추세여서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세종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31건, 2017년 61건, 2018년 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55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건에 이른다. 대부분 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속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20.03.25 시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3.25 시행)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은 낮은 편이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세우고 법을 바꾸더라도 결국 실천이 없으면 교통안전문화는 정착될 수 없으며 안전한 환경에 대한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는 물론 세종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세종소방본부가 119구급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는 215명이 발생해 2018년에 비해 9.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가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에게 전신 부상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2019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구급 환자 중 중증 환자는 28명(16%)으로 같은 기간 관내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증 환자 비율 11.8%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였으며 오토바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교통신호 미준수 ▲과속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대부분 사고 위험이 큰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종시가 지난 3~4월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4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지가 손상돼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세종시와 시교육청, 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시설 개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립 등 4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경찰청, 세종시아파트연합회, 자율방범대 관계자, 안전보안관 등 민관 공동으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문화 개선 안전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노력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짚어 보았듯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계속 된다면 세종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담보 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 지키지 않았던 안전을 다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권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 아이도, 어른도 함께 조심해야 하는 교통안전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어린이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관찰하거나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관참을지 몰라도 어린이의 돌발 행동이 도로 위에서 일어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정리했으니 아이와 함께 보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호자이자 운전자인 어른들도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하자.

###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 횡단 시 초록불이 켜지면 바로 달려가는 경우

어린이가 좌우를 살핀 후에 건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운전자는 노란불일 때 무리하게 주행하지 말고 반드시 정지선 안쪽에 정차한다.

#### 무단횡단하는 경우

모방심리가 강한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 먼저 무단횡단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자.

####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

길을 걸을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장난치며 걷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지날 때 특히 주의하도록 하자.

#### 차의 앞뒤에서 노는 경우

자동차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정정차된 차량 앞뒤로 뛰어 나오거나 버스의 앞뒤로 횡단하는 경우

어린이가 정정차된 차량 앞뒤로 뛰어나오는 것은 골목길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고, 골목길 주행 시에는 꼭 서행해야 한다. 또 버스에서 내린 뒤 무작정 버스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INTERVIEW |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박사

## 아이들이 안전한 세종,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그의 가족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강하게 호소했고, 이에 정치권도 화답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았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작가) |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준 박사(이하 이준) |**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인데요. 교통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응급대응교통체계 분야는 재난 시 교통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접근하는 걸 미리 파악해 임의로 신호 체계를 바꿔준단든지 앰بول런스 접근 시 어떻게 피해줘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작가 |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이면서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이준 |**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어린이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중심길이 되는 '한누리대로'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 학교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곳이 주요 도로다 보니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피라움 3단계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원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세종시는 교육열이 높아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 시야를 가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 | 민식이법 제정 이후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해법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 |** 저는 민식이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벌금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 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이 추가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만한 해법 중 하나로 드림존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주로 학부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순환시키거나 합법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드림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사용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풀 제도를 활성화해 차량 통행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30km로 갔을 때 1초에 8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8m라는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봐야 하는데 주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부모 차량을 비롯한 택배 차량, 오토바이를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8m의 간격을 유지해 시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를 가리는 플랜카드, 가판대 같은 모든 시설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가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해 이륜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다면요?**

**이준 |** 배달음식 문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고요. 요즘 생활권이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륜차를 지하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1층이 주 출입로였고 지하는 주차를 하는 공간이라 이륜차가 지하로 움직이는 게 맞았겠지만 요즘의 아파트는 필로티 구조로 건설돼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을 놀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주 출입로는 지하 1층이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가 많고, 미끄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다양해지면서 지하 1층이 주 출입구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하 1층으로 이륜차를 이동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작가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스쿨존과 옐로우 카펫 같은 이색 아이디어들이 교통 안전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적용할만한 아이디어 시설들이 있을까요?**

**이준 |** 시설물 도입보다 아이들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민식이법 놀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없이 어른들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교통안전 규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운전자들도 주의를 해야 하지만 아이들 역시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준 |** 첫째는 배려심입니다. '내 아이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아이만 태우면 되고, 내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보다 다른 아이도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세종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보호자님!'이라고 부르자 세 명의 운전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공익 광고가 있다. 도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아이들의 보호자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먼저 살피고, 횡단보도에서 선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보호 운전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아이들도 뛰지 않고, 주의를 살피며... 모두가 웃으며 오갈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범칙금과 벌점은 경고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안전을 실천하면 걱정할 것 없어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35만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면서 사실상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지금까지도 여전한 듯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법과 제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경고'는 안전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문자에 불과해질 것이다.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과 벌점

위반행위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일반도로	보호구역	면허정지	1회 사고 40점 이상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60점	120점	면허취소 연간 누산점수 1년 120점 2년 200점 3년 270점 초과
	40~60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30점	60점	
	20~40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3만원	6만원	15점	30점	
	20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없음	15점	
신호 및 지시 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15점	30점		
주-정차 위반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0점	20점	

# '어린이 교통안전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세종형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

세종시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어린이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세종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핵심 키워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간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어린이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을 함께 살펴 봅시다.

## 보호받아 마땅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스쿨존(School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안전을 배우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사고를 통해 안전을 배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안전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사례를 통해 안전을 배워 봅시다.

##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이라는 습관을 길러주는 '노란색'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이라는 습관을 길러주는 '노란색' 어린이를 위한 시설, 차량, 옷에는 주로 노란색이 활용됩니다. 공명점이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어른들의 눈에 쉽게 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을 적용한 것이죠. 이처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 아이디어를 더해 어린이들을 도로 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 노란 발자국

- 노란 발자국은 차도와 1m 이상 떨어져 안전하게 기다리다가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길을 건너 수 있게 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 노란색 정자선과 발자국으로 구성돼 있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놀이하듯 발자국 모양에 발을 맞춰 서게 합니다.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너지(nudge) 디자인이죠.
- 이 발자국이 경기도 일부 학교에 만들어진 지 2개월여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7건으로 8건으로 줄었습니다(경기 남부, 2016년 7월 기준). 설치 비용도 저렴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옐로카펫

-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근처의 보도를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으로 조성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줍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는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를 쉽게 인지합니다.
-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운전자들은 진입 전 19.4km/h에서 16.0km/h로 평균 3.4km/h로 감속 운전했습니다. 또 전체 횡단 대가 291명 가운데 265명(91.1%)이 옐로카펫 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속도 저감 정책처럼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옐로카드

- 옐로카드는 어린이들의 안전감수성을 키워 어린이 스스로 교통안전을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축구장의 '옐로카드'에서 힌트를 얻은 옐로카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위험요소에 경고를 보내는 한 편,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방에 옐로카드를 넣어 어린이들이 다른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옐로카드와 함께 리플렛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보호자, 어린이와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 똑똑하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의 발달은 안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너지'에 최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보다 유쾌하고 안전하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IoT

- 세종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결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험요인과 안전과제를 탐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횡단보도 사고방지를 위한 Io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한결초등학교 일원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과속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스마트 차량 접근 알리기', '보행자 횡단 알림 바퀴'등 그리고 여기에다 횡단보도와 보행 중인 사람이 잘 보이는 '투광등'을 설치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스쿨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폰 보행자방지 앱, '까치네'를 개발 보급하여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공고히 했습니다.
- 또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이름짓기 공모전, 불법현수막 방지 표지판 설치, 홍보 책자 배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주는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돼 있고, 이 규칙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지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 교통안전시설까지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표지		
안전표지	어린이보호표지 (지시표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노면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 및 차도 부속물	고원식 교차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인도)	
차량용 방호 울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020.03.25 이후 신설된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신호기	

## 잠깐! 세종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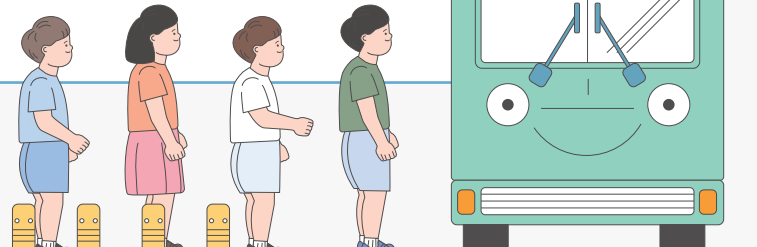
세종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시민공동체위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통안전대책을 세우는 한편 시청·교육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세종시의 5대 중점 분야 16개 세부 과제

- 시설투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및 시인성 강화
  - ① 무인교통단속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 ②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강화
  - ③ 통학로 설치 등 안전한 어린이보행환경 조성
- 사각지대**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 ① 어린이대상 학원 등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 ② 이마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
  - ③ 어린이 학원 차량 등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 불법근절** 교실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문제 해결
  - ②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③ 교통안전 관영제보안 도입
- 시민참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①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 ②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체계적 추진
  - ③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 문화개선 어린이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

- ①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사 등 활용 통학로 안전 강화
- 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 ③ 세종교육청 세종초등학교원 건설
- ④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COVER STORY

#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세종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으며, 중앙 정부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아래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질 때 그 효과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여섯 번째 이야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편에서는 세종시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소개, 어린이 안전매뉴얼, 관련 현황 등을 재미나게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b>발행</b>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b>편집위원</b>	심준우 / 민경환 / 유정	<b>디자인·제작</b>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b>기획</b>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b>에디터</b>	오호라	<b>디자이너</b>	허현정
<b>발행일</b>	2020년 08월	<b>취재</b>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b>문의</b>	044-300-3613~4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